

“마음 비우는 순간 깃털처럼 가벼웠다”



7월 28일 개막한 2012런던올림픽이 8월 13일 폐막했다. 당초 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런던행 비행기에 오른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에 종합순위 5위라는 성과를 올리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높였다. 특히 금메달 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선수단의 메달 중 대부분을 불자선수들이 따며 감동을 선사했다.

런던 올림픽에서 휘날린 태극기 아래는 선수 68명, 감독과 코치 등 인원 34명 등 총 102명의 불자선수단의 뜨거운 불심이 있었다. 긴 시간 동안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린 불자 선수들의 열매는 달았다. 이들 뒤에는 불자 코치진과 불자 부모님들의 간절한 발원이 있었다. 이들은 때로는 선수들보다 더 강인한 모습을 보이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노덕현 · 이은정 기자

사격 마음·호흡 조절 평정심에 최후의 방아쇠 흔들림없어



진종오 김정미 최영래

8월 5일 한국 올림픽 사상 개인종목 최초 2연패, 사격 최초 올림픽 2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진종오 선수의 마음은 텅빈 그 자체였다. 천태종 신도인 진종오 선수는 관음기도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런던 올림픽 남자 50m 권총에서 진종오 선수와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인 최영래 선수도 독실한 불자다.

여자 25m에서 금메달을 딴 김정미 선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정향진 씨와 함께 사활을 찾았다. 김 선수는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해 긴장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다. 런던으로 향하기 전에는 어머니께서 단주를 주셨다”며 금메달의 영광을 어머니께 돌렸다.

체조 가방 속 경전서 도약의 힘 솟아



양학선

마음을 비운 그의 몸놀림은 마치 깃털과 같았다. 6일 ‘도마의 신’이라는 별명처럼 1.2차 시기 평균 16.533점을 작성하며 올림픽을 정복하기까지 그의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었다. 양학선 선수는 “착지하는 순간 금메달을 확인했다”며 “부모님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다. 양 선수는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권유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체육인 연합회 장학생 출신이기도 한 양 선수는 가방에 경전서를 넣고 다니며 읽을 정도로 독실하다.

“부처님은 나에게 큰 힘이였다”

이기흥 런던올림픽 한국선수단장

“올림픽 경기 동안 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이 함께 선수들 경기를 응원해 줘서 정말 힘이 됐습니다. 경기의 가장 적은 욕심입니다. 스님들께서 선수들이 경기를 나가기 전, 준 단주를 차고 경기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 단장은 “펜싱의 신아람 선수가 1초 오심으로 역울하게 패하고 난 뒤, 선수들이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박종길 선수총장님과 108배를 했다”며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 주셨는지 다음 날 3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전 “순간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달리스트 중 불자선수들이 유독 많았다. 그만큼 불교가 선수들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펜싱 상대 흥분 할 수록 더욱 집중하니 금메달 보여



신아람 구분길 원우영

펜싱 선수들의 기량은 불교 명상으로 더욱 빛을 발했다. 오십관정을 겪으며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던 신아람 선수는 태릉선수촌 범당 지도법사 스님이 해 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숨을 쉬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명상을 하며 오심으로 얼룩진 분노의 마음을 다스렸다.

또한 남자 단체전에 출전한 구분길, 김경환, 원우영 등은 대표 불자 선수들로 투혼을 발휘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레슬링 매주 선수촌 법회 열성, 훈련도 열심



김현우

아들의 눈은 시퍼렇게 부어 있었다. 김현우 선수가 8일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독실한 불자인 아버지 김영구(60) 씨와 어머니 박영호(55) 씨는 “우리 아들 장하고, 고맙다”를 외쳤다. 김현우의 금메달은 올림픽을 위해 흘린 땀이 빛을 결실이었다. 그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체중 조절에 실패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했다. 김현우 선수는 그 누구보다 훈련에 매진했다. 매주 일요일 선수촌 법당의 법회에 참여하며 다진 신심도 그 누구보다 강했다.

양궁 무심 속 활시위 떠난 화살 금빛 포물선 그리



오진혁 기보배 김범민

불자선수 오진혁, 기보배, 최현주, 김범민 등이 활약하며 양궁은 남·여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큰 활약을 보인 최현주 선수는 가장 불심이 깊은 선수로 알려져 있다. 항상 선수촌법당에서 봉행되는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남다른 불심을 키워왔다. 또한 불자커플인 오진혁 선수와 기보배 선수 역시 경기 내내 단주를 차고 결승전 마지막 한발까지 혼신을 다해 화살을 당겼다. 장영술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은 “불교와 양궁은 매우 닮았다. 굉장한 집중력(禪)적인 종목이다. 때문에 불자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기량으로 선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단주 차고 마지막까지 힘찬 스매싱



이용대 송태성

이용대·송태성 두 선수는 출국 전 공항에서 이용대 선수 어머니 이애자씨가 선물한 단주를 나눠 먹고 힘차게 스매싱을 날렸다. 정대성 선수는 이용대에게 항상 미안해 하며 부상 회복에 힘썼고, 이용대는 정대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옥훈련을 견뎌냈다. 두 선수는 각각 시간이 날 때마다 절을 찾아기도를 한다. 처음 예상했던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있게 경기를 치렀다”고 말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을 다녀와서

소요산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

런던에 도착한 후, 먼저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직능전법단 체육분과 지도법사 스님들은 8월 6일 오전 런던 스트랫포드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을 찾아 불자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불자 선수들은 런던올림픽에서 양궁을 비롯해 사격, 배드민턴, 레슬링, 체조, 핸드볼, 펜싱 등 여러 종목에서 골고루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사격이나 양궁 등은 경기 막바지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접전을 펼치며 승부가 결정된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까지 불자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또 불자선수들이 참가한 신홍사 수련대회나 선전기원법회 등도 선수들이 긴장을 덜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승부를 떠나 선수들의 혼신에 노력, 끊임없는 도전정신은 세계와 인류에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동안의 선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속 불교용어

방경일 글/김광일 삽화/국판변형/256쪽/10,000원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천태교학에서 바라본 반야심경

고도의 불교학이자 실천체계를 겸한 천태교관에 입각하여 『반야심경』을 진공실상과 지관수행이라는 이론과 실천의 두 줄기로 정리한 명저!

반야심경 강의

빈종범사 강술/이동형 편저/신국판/354쪽/15,000원

선과 뇌

아리타 히데호·겐유 소류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